스위스 자전거 길.

풍경을 벗삼아 느릿느릿 페달을 밟는 여행길

유네스코 세계유산, 알레취 빙하따라 자전거 달리고,
루체른 호숫길 돌며 스위스 역사 체험하고,
융프라우 바라보며 뮈렌까지 산악 자전거 세차게 밟고,
취리히와 베른에서 무료로 자전거 대여해 구시가지 돌아보고,
생갈렌 유네스코 도서관의 신비한 기운이 이어지는 라인강 따라 달려보고,
이바이크 타고 베른 근교의 에멘탈 치즈 농가 둘러보고.

우리 나라에서는 최근 강원도와 전북을 비롯해 많은 지방 자치 단체들이 산악관광 개발에 관련한 다양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그 중에서 산악 자전거는 빠지지 않는 아이템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최근 스위스에서는 자전거 여행자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고객층이라는 분석이 있어, 각 지역 관광청들은 스위스 모빌리티(SwitzerlandMobility)와 함께 산악 자전거 관련한 관광 아이템을 개발하는데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라우터브루넨(Lauterbrunnen)에서 새로운 산악 자전거 루트 개발에 관련한 구조 계획이 해당 정부 기관에 제안되기도 했다. 동력으로 움직이는 산악 이바이크 규제 여부를 두고 논쟁이 뜨겁기도 하다. 마침, 7 월 18 일 프랑스에서 열리는 뚜르 드 프랑스에 베른이 코스로 포함되어 이슈가 되며, 스위스 내 자전거 열풍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체험 위주의 슬로우 트래블이 각광을 받고 있는 만큼, 스위스에서 하이킹, 바이킹, 래프팅, 인라인 스케이팅 등 자연 안으로 들어가 스위스의 여름이 주는 참맛을 체험해 보려는 여행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스위스 모빌리티(SwitzerlandMobility)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특히 스위스 전역에는 잘 설계된 자전거 루트가 펼쳐져 있다. 일반 자전거는 물론, 산악 자전거 코스도 잘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한 번쯤 즐겨볼만 하다. 그 중 대표적인 루트를 소개한다.

1. 알레취(Aletsch) 빙하 루트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선정된 유럽 최대의 빙하, 알레취(Aletsch) 빙하의 신비로운 기운을 느끼며 산악 자전거를 즐길 수 있는 루트다. 론느(Rhone) 계곡과 발레(Valais) 주의 알프스 봉우리가 절경을 이루는 파노라마를 벗삼아 자전거 투어에 나설 수 있다. 베트머알프(Bettmeralp)에서 시작하는 루트로, 알레취 빙하의 절경을 보여주며 정겨운 산악 마을인 리더알프(Riederalp)까지 그 여정을 이어간다.

먼저, 베트머알프 케이블카를 타고, 베트머호른(Bettmerhorn)에 오른다. 베트머호른에서 나무로 만들어진 산책로를 따라가면 알레취 빙하를 감상할 수 있는 전망대가 나온다. 파노라마를 감상한 뒤, 피에셔알프(Fiescheralp)와 마르옐제(Marjelsee) 호수를 향해 바위가 많은 하이킹 트레일을 따라 간다. 트레일이 처음에는 커다란 바위가 많아 불편하지만, 곧 편한 흙길로 바뀌고, 재미요소로 즐길만한 바윗길도 조금씩 나온다.

이 트레일의 전 구간에서 알레취 빙하의 파노라마를 볼 수 있다. 1.5km 정도 가면 암석사태가 난 곳이 있어 자전거를 잠시 들쳐 메고 지나가야하는 코스가 나온다. 이 암석들을 지나고 나면 로티 춤마(Roti Chumma) 교차로가 등장할 때까지 비교적 순탄한 코스가 나온다. 이 곳에서 피에쉬(Fiesch)로 향하거나, 좌회전을 해 리더푸르카(Riederfurka)까지 여정을 이어갈 수 있다.

Switzerland Tourism
13Fl.,Dongbu Dadong Bldg.,Da-Dong, Jung-Gu, Seoul, Rep.of Korea, Telephone +82 (0)2 3789 3200 Fax +82 2 3789 3255,
www.MySwitzerland.com It is our pleasure to help plan your holiday.

리더푸르카까지 이어지는 트레일은 높낮이가 좀 있지만, 가는 내내 빙하의 기막힌 절경을 선사해, 전혀 후회되지 않는다. 비엘(Biel)까지 향하는 능선을 따라 높은 곳 라이딩을 즐기고, 그 후에는 리더푸르카로 향하는 그라트베그(Gratweg) 트레일로 접어든다. 리더푸르카에 있는 산장에서 잠시 쉬며 맛깔난 발레지역 향토식을 즐겨도 좋다. 리더푸르카에서 리더알프(Riederalp)로 향하게 되는데, 언덕 위에 자리한 마을, 리더알프에 위치한 여러 리조트 호텔 중 하나에서 하룻밤 묵어가며 알프스 산속의 고요와 정겨운 마을 풍경을 마음껏 즐겨도 좋다.

난이도: 어려움
총길이: 약 9km
소요시간: 2 시간

2. 루체른 호수(Lake Luzern) 루트

40km 를 주파하며 스위스의 역사만큼 변화무쌍한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스위스 루트'를 체험해 볼 수 있는 루트다. 완만한 호숫가 언덕을 오르내리고, '루체른 호수'라고도 불리는 피어발트슈태터(Vierwaldstättersee) 호수와 리기(Rigi) 산의 절경을 감상하며 라이딩을 즐길 수 있다.

구불구불 이어지는 호수 전망의 자전거 루트는 루체른(Luzern)에서 시작하여 호수를 따라 교통박물관(Verkehrshaus)을 지나 멕겐(Meggen), 슈타트발트(Stadtwald)를 향한 뒤, 호숫가의 작은 마을들인 퀴스나흐트(Küssnacht), 가이스뷜(Geissbühl), 벡기스(Weggis), 비쯔나우(Vitznau)를 거쳐, 스위스 연방이 탄생한 뤼틀리(Rütli) 들판이 있는 브룬넨(Brunnen)까지 이어진다. 특히, 벡기스, 비쯔나우는 리기 산 등산 철도 및 케이블카가 연계되는 곳으로, 앙증맞은 마을과 호반이 정겨운 곳이다. 브룬넨은 루체른 호반에 자리하여 동쪽으로는 우르너제(Urnersee)를, 반대편으로는 뷔르겐슈톡(Bürgenstock) 산과 고타르드(Gotthard) 산맥의 풍경을 선사한다.

다음 구간의 도로에서는 차량이 많이 지나다니므로 유의하도록 한다.
루체른 시내,
뷔르첸바흐(Wurzenbach)–멕겐(Meggen)
퀴스나흐트(Küssnacht) 및 벡기스(Weggis)–비츠나우(Vitznau)–게르사우(Gersau)–브룬넨(Brunnen)

총 거리: 40km
난이도: 중급
고도 차이: 560m
루트: 루체른(Luzern) –베르케르스하우스(Verkehrshaus) – 멕겐(Meggen) – 슈타트발트(Stadtwald) – 퀴스나흐트(Küssnacht) – 가이스뷜(Geissbühl) – 벡기스(Weggis) – 비츠나우(Vitznau) – 로츄오(Rotschuo) – 게르사우(Gersau) – 브룬넨(Brunnen)

루체른 관광청: www.luzern.com

3. 융프라우(Jungfrau) 지역 뮈렌(Mürren) 산악 자전거 투어

융프라우 지역의 풍경과 지형을 가장 잘 체험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산악 자전거다. 융프라우 지역에는 160km 에 이르는 산악 자전거 루트가 잘 정비되어 있으며, 루트 어느 곳에서나 알프스의

전형적인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초급 수준부터 전문가 수준까지의 모든 난이도가 있어 자신의 수준에 맞게 루트를 선택할 수 있다.

라우터브룬넨(Lauterbrunnen)의 U 자형 계곡 위 햇살 가득한 산길을 따라가며 깎아지른듯한 절벽과 수많은 폭포를 볼 수 있는 자전거 루트가 있다. 스위스 자전거 길 중 450 번 길로, 라이딩을 즐기는 동안 아이거(Eiger), 묀히(Mönch), 융프라우(Jungfrau) 세 봉우리를 어디서나 감상할 수 있다.

라우터브룬넨 마을에서 출발해 포르슈트슈트라쎄(Forststrasse) 길을 따라 주욱 올라가면서 다양한 알프스 치즈 농가를 지나게 된다. 슈프리쎈(Spryssen) 숲과 마르헤그(Marchegg) 숲의 저지대를 지나 그뤼취알프(Grütschalp)에 있는 첫 알프스 오두막에 닿게 된다. 빈터레그(Winteregg)에서는 아이거, 묀히, 융프라우가 펼쳐지는 기막힌 파노라마를 감상할 수 있는데, 이 풍경이 뮈렌까지 고스란히 이어진다.

미텔베르그(Mittelberg)부터 이 루트는 숲 윗길을 따라 이어지는데, 유유자적히 풀을 뜯는 소들과 송아지, 알프스 야생화가 있는 낭만적인 풍경을 즐길 수 있다. 얼마 후 이 루트에서 가장 높은 지점에 해당하는 카노넨로흐르(Kanonenrohr)에 닿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블루멘탈(Blumental) 계곡을 내려다 볼 수 있다. 이 계곡을 따라 자동차 출입이 금지된 알프스 산골 마을, 뮈렌(Mürren)으로 향하게 된다.

뮈렌의 알프스 샬레 호텔에서 하룻밤 묵어가며 쉴트호른(Schilthorn)을 올라 정상의 회전 레스토랑에서 007 제임스 본드 브런치를 즐기며 샴페인 한 잔을 곁들여 융프라우 지역의 기막힌 파노라마를 감상하기 좋다.

뮈렌에서 시작하는 하강 코스는 어여쁜 김멜발트(Gimmelwald) 마을을 지나 라이딩을 즐기다 보면 세피넨 뤼취네(Sefinen Lütschine) 시내가 나온다.

여기에서 잠깐의 가파른 오르막길을 만날 것을 준비해야 한다. 잠깐 자전거를 끌고가도 좋다. 이 구간을 지나면 포르슈트슈트라쎄(Forststrasse) 길을 따라 슈테첼베르그(Stechelberg)로 향하게 되고, 오래된 계곡 트레일을 따라 라우터브룬넨으로 다시 돌아가 된다. 라우터브룬넨 계곡에 있는 여러 폭포 앞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는 바이커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

총 길이: 27km
난이도: 중급
고도차: 1100m

시간이 너무 소요된다면, 뮈렌(Mürren)에서 빈터레그(Winteregg)를 거쳐 다시 뮈렌으로 돌아오는 짧은 코스를 선택해 봐도 좋다. 총 거리는 4.7km 정도다. 슈테첼베르그에서 뮈른까지 운행하는 쉴트호른(Schilthorn) 케이블카는 무료로 자전거를 수송해주고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융프라우 지역 관광청: www.jungfrauregion.ch
쉴트호른: www.schilthorn.ch

4. 취리히(Zurich) 시내 자전거 투어

취리히에서는 '쥐리 롤트(Züri rollt)'라는 무료 자전거 대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자전거를 한 대 빌려, 두 바퀴로 취리히 구시가지 곳곳을 둘러보기 좋다. 도시형 자전거나 이바이크, 어린이 자전거 등 다양한 자전거를 무료로 대여할 수 있는데, 여권과 CHF 20 의 보증금을 아래 대여소에 맡기면 된다.

연중 대여 가능한 곳
- 북쪽 대여소: 스위스 국립 박물관(Swiss National Museum). 매일 오전 8 시부터 오후 9 시 30 분
- 남쪽 대여소: 포스트브뤼케(Postbrücke) 다리 남단. 월-금요일 오전 8 시부터 오후 9 시 30 분, 토-일요일 오전 9 시부터 오후 9 시 30 분

5 월부터 10 월 동안 대여 가능한 곳
- 반호프슈트라쎄(Bahnhofstrasse) 글로부 시티(Globus City) 근처에 있는 페스탈로찌비세(Pestalozziwiese): 매일 오전 9 시부터 오후 9 시 30 분까지
- 뷔르클리플라츠(Bürkliplatz) 광장 슈타트하우스케(Stadthausquai) 거리: 매일 오전 9 시부터 오후 9 시 30 분까지
- 엥에(Enge) 기차역 테시너플라츠(Tessinerplatz) 광장: 월-금요일 오전 10 시부터 오후 9 시 30 분, 토-일요일 오전 9 시부터 오후 9 시 30 분
- 취리히 서부의 임 비아둑트(Im Viadukt)와 접한 요세프슈트라쎄(Josefstrasse)

자전거 예약은 불가능하다.

AOZ Züri rollt
8001 Zürich
Phone: +41 44 415 67 67
www.zuerirollt.ch

취리히 관광청: www.zuerich.com

5. 생갈렌(St. Gallen) 라인강 루트

스위스 동부에 자리한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수도원과 부속도서관으로 유명한 도시, 생갈렌에서 자전거를 타고 옛 라인강을 따라 라이넥(Rheineck)까지 이어지는 루트다.

생갈렌의 식물원에서 시작하는 이 루트는 뫼르취빌(Mörschwil)로 이어지다 호른(Horn)을 향해 내리막길을 이어가며 콘스탄스(Constance) 호수까지 여정을 계속한다. 호숫가를 따라 로르샤흐(Rorschach)를 지나 알텐라인(Altenrhein)까지 라이딩을 즐기며 옛 라인 강을 따라가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 강을 따라가다 보면 이 루트의 목적지인 라이넥이 나온다. 뫼르취빌 근처와 호른을 바로 지나서는 작은 고성들을 지나게 되는데, 잠시 멈추어 둘러볼만하다.

로르샤흐에서는 1924 년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목욕장, '바드휘테(Badhütte)'가 호수에서 잠시 수영이나 하고 가라고 손짓을 한다.

알텐라인은 스위스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훈터바써(Hundertwasser)의 건축물을 감상할 수 있는 곳으로, 알텐라인 장터인 마르크할레(Markhalle)가 그 주인공이다. 기계광이라면 알텐라인 공항에 있는 항공

박물관을 방문해 보아도 좋다. 과거의 비행기가 아름답게 전시되어 있고, 시험 비행을 예약할 수도 있으니 말이다.

콘스탄스 호수 전 구간 중 여러 곳에 자리한 호숫가 수영 시설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작은 도시, 라이넥에서는 그림같은 구시가지와 다채로운 미식 체험을 즐길 수 있다.

생갈렌으로 돌아가는 여정은 대중 교통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라이넥에서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보트를 타고 알텐라인을 가서 로르샤흐까지 자전거로 이동한 뒤, 기차를 타고 생갈렌으로 갈 수 있다. 탑승 티켓만 소지하고 있다면 보트나 기차에 자전거를 싣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생갈렌 관광청: www.st.gallen-bodensee.ch

6. 베른(Bern) 근교 헤르츠루트(Herzroute)

'심장 루트(The Heart Route)'라는 뜻의 자전거 길로, 구멍난 치즈로 유명한 에멘탈(Emmental) 지역에 펼쳐진 스위스 알프스 구릉지대를 따라가는 아름다운 여행이다. 완만한 구릉지와 초록 들판, 아름다운 숲과 알프스의 파노라마가 펼쳐지는 길로, 마음 한 구석에 길이 남을만한 풍경이다, 해서 지어진 이름이다.

자동차 소리와 분주함에서 벗어난 한적한 트레일은 특히 이바이크족들에게 사랑을 받는다. 루트를 지나는 동안 목가적인 풍경과 순박한 농촌 사람들의 환영을 받을 수 있다. 알프스 구릉지를 굽이굽이 지나게 되는데, 모든 언덕 뒤에는 자신만의 색깔을 가진 특색있는 계곡이 나타난다.

이 구간의 목적은 목적지가 아닌 그 길 자체에 있다. 스스로의 속도에 맞춰 스위스를 체험하면 된다. 중간 중간에 풍경을 즐기기 좋은 장소가 있으니 쉬엄쉬엄 가면 좋다. 곳곳에 나타나는 작은 마을과 농장에서는 맛깔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전 구간에서 이바이크 이용자들을 위한 배터리 충전소가 있어 편리하다. 경사가 완만하기 때문에 일반 자전거도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구간이다.

이 루트 중 랑나우(Langnau)와 부르그도르프(Burgdorf) 구간에서는 에멘탈(Emmental) 마을을 체험해 볼 수 있다. 랑나우에서 에멘탈까지 고요한 시골길을 따라 루트가 이어지는데, 스위스다운 낭만적인 파노라마가 볼거리다. 역사적인 부르그도르프 구시가지에서 발길을 돌리기 좋다.

총 길이: 45km
헤르츠루트: www.herzroute.ch

베른 무료 자전거 대여 서비스

베른(Bern)에서는 무료로 자전거, 이바이크, 스쿠터, 스케이트보드를 대여할 수 있는 베른롤트(Bern rolt)라는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여권과 보증금 CHF 20 을 맡기면 원하는 것을 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 추가 되는 시간을 이용할 경우 시간당 CHF 1 를 지불해야 한다. 총 5 일까지 자전거를 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 베른의 밀크갸슬리(Milchgässli), 히르셴그라벤(Hirschengraben),

초이그하우스가쎄(Zeughausgasse)에 베른 롤트 대여소가 마련되어 있다. 5 월부터 10 월까지만 운영하며 매일 오전 7 시 30 분부터 오후 9 시 30 분까지 운영한다. www.bernrollt.ch

베른 관광청: www.bern.com

자료협조: 스위스 정부관광청 www.MySwitzerland.co.kr

Switzerland Tourism
13Fl.,Dongbu Dadong Bldg.,Da-Dong, Jung-Gu, Seoul, Rep.of Korea, Telephone +82 (0)2 3789 3200 Fax +82 2 3789 3255,
www.MySwitzerland.com It is our pleasure to help plan your holiday.